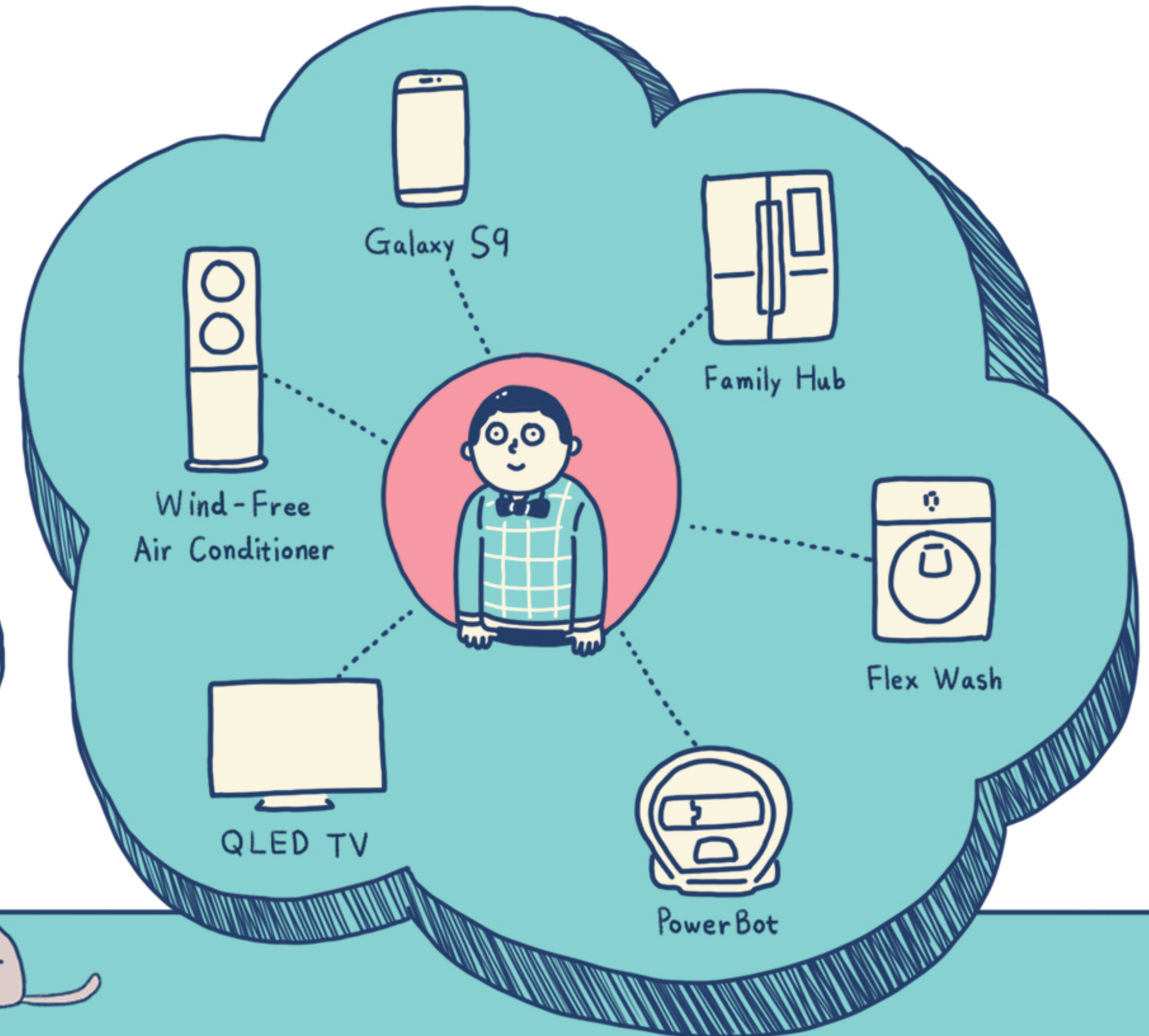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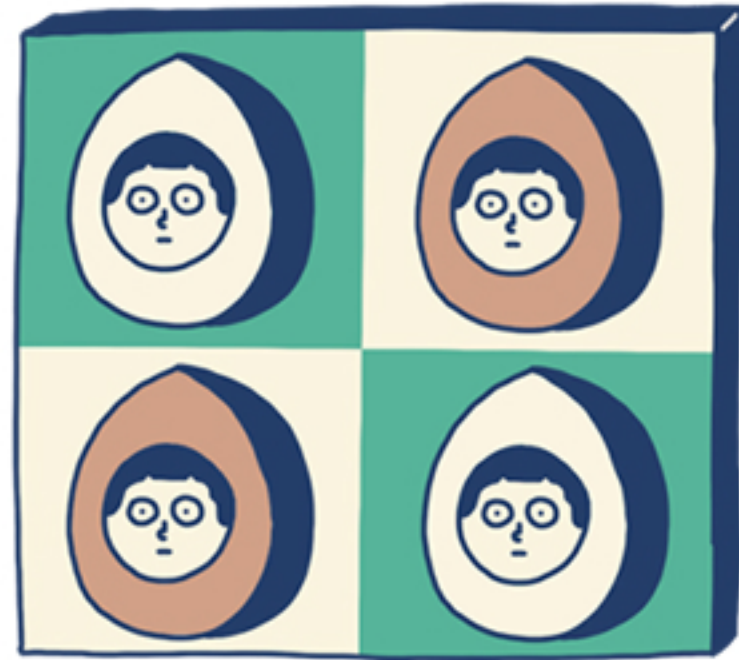


ONE FINE DAY THROUGH THE SMART HOME

삼성전자 제품으로 경험하는 스마트한 하루





우리는 스마트폰에 날씨를 물어보고, TV가 내 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일에 익숙합니다.
생각보다 스마트한 기술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작동법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모든 기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스마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막 독립을 시작한 나의 하루를 통해 스마트 홈과 함께 더 똑똑해진 일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의 문을 열어주는 삼성전자 스마트 홈을 만나러, 우리 집으로 놀러오세요.

*본 콘텐츠는 이해를 돕기 위해 설정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콘텐츠에 언급된 기능은 국가, 지역, 제품에 따라
지원 사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 (www.samsung.com)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AM 10:00

나의 아침을 열어주는 똑똑한 파트너

한가로운 토요일 아침은 날씨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주5일을 출근하는 직장인에게는
꿀처럼 달콤한 시간이죠. 오늘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잔뜩 늘어져 있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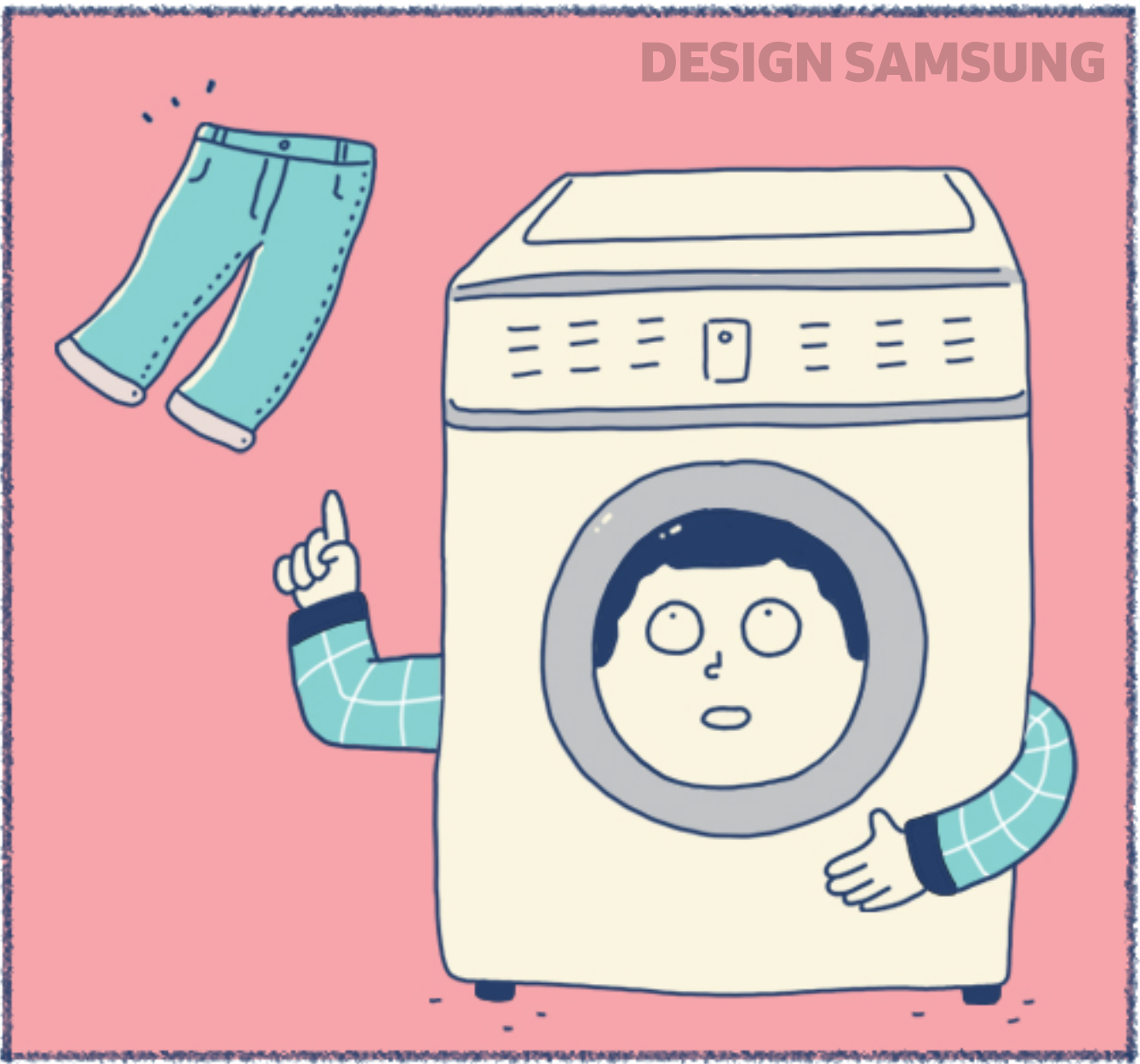
마침 빅스비가 아침을 알리며
오늘의 날씨를 알려줍니다.
화창하고 무더운 날씨네요. 일정도
한번 물어볼까요? “하이, 빅스비.
오늘 일정이 뭐야?” 빅스비가
불러주는 오늘의 일정에 잠이 확
달아납니다.
“오후 2시 대망의 집들이 날”



자취 생활의 가장 큰 로망이었던
홈파티지만, 마음 먹었던 것과 달리
침대에서 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집안일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서둘러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네요.
벌써 11시가 가까워오네요. 친구들이
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3시간! 빨래,
청소, 요리까지 모두 끝내야 합니다.



방 구석에 잔뜩 쌓여있는 빨래부터
해결해 볼까요? 자취를 하며 가장
난감할 때는 빨래를 할 때입니다.
남방과 청바지는 같이 세탁해도
될까요? 따로 세탁해야 할까요?
까다로운 세탁 방법 앞에 엄마
생각이 절로 납니다.



빅스비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하이, 빅스비. 청바지는 어떻게
빨아야 해?” 마치 엄마처럼 친절하게
답해주네요. “청바지는 이염이 되니
따로 세탁하세요.” 기댈 곳 없는
자취생의 마음을 놓이게 해주는
한줄기 빛 같습니다.



이제 장을 보러 나가야겠어요.
할일이 태산이지만, “하이, 빅스비.
외출 모드.” 한마디면 미리 설정한
대로 조명과 TV, 에어컨, 공기청정기가
한번에 꺼지고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시작합니다.

PM 12:00

집 밖에서도 컨트롤 하는 우리집

갑작스런 준비에 생각보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배달음식을 시켜볼까 잠시 생각했지만
처음 우리집에 초대한 손님들인 만큼 직접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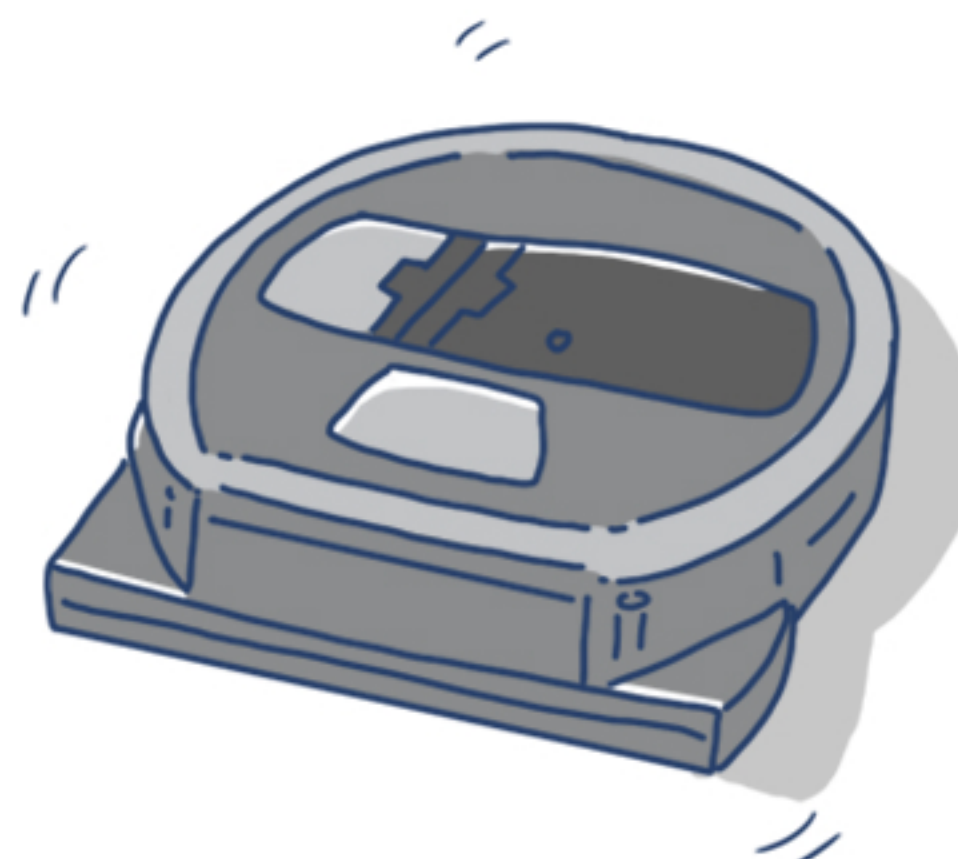


마트에서 장을 보는 중
문득 냉장고 안에 어떤 재료가
남아있는지 잊었네요.
당황하지 않고 스마트싱스 앱으로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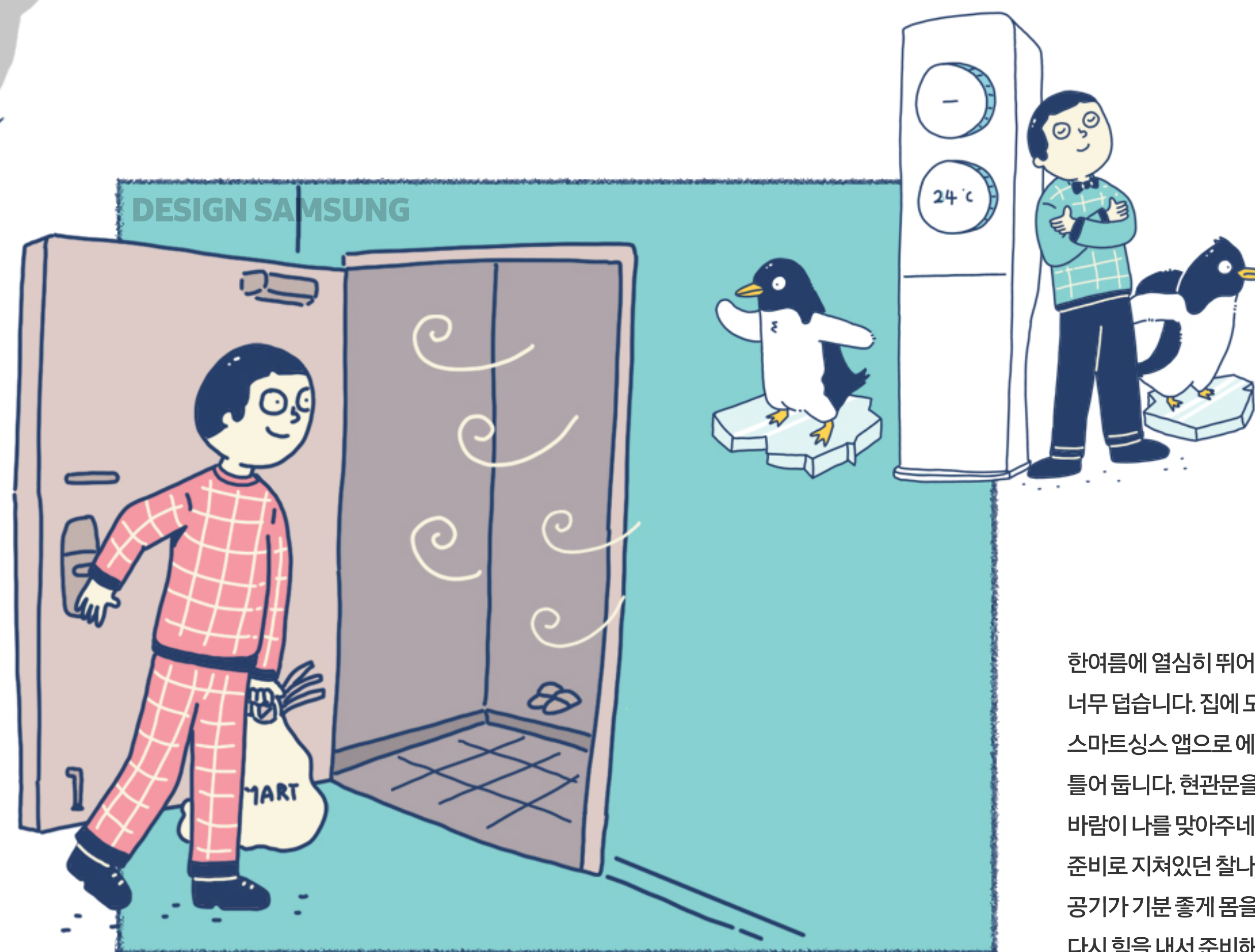


당황스럽게도
냉장고 안이 텅텅 비었네요.
장을 서둘러 봐야겠어요.

친구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 방구석에 쌓였던 먼지들과
잔뜩 세탁기에 밀어 넣은 빨래들이
떠오릅니다. 빨리 스마트싱스 앱으로
집 안을 확인합니다.



나오기 전 시작한 세탁이
30분 뒤면 끝나네요. 서둘러
집에 가야겠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한창 청소
중입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청소를 마치도록 설정해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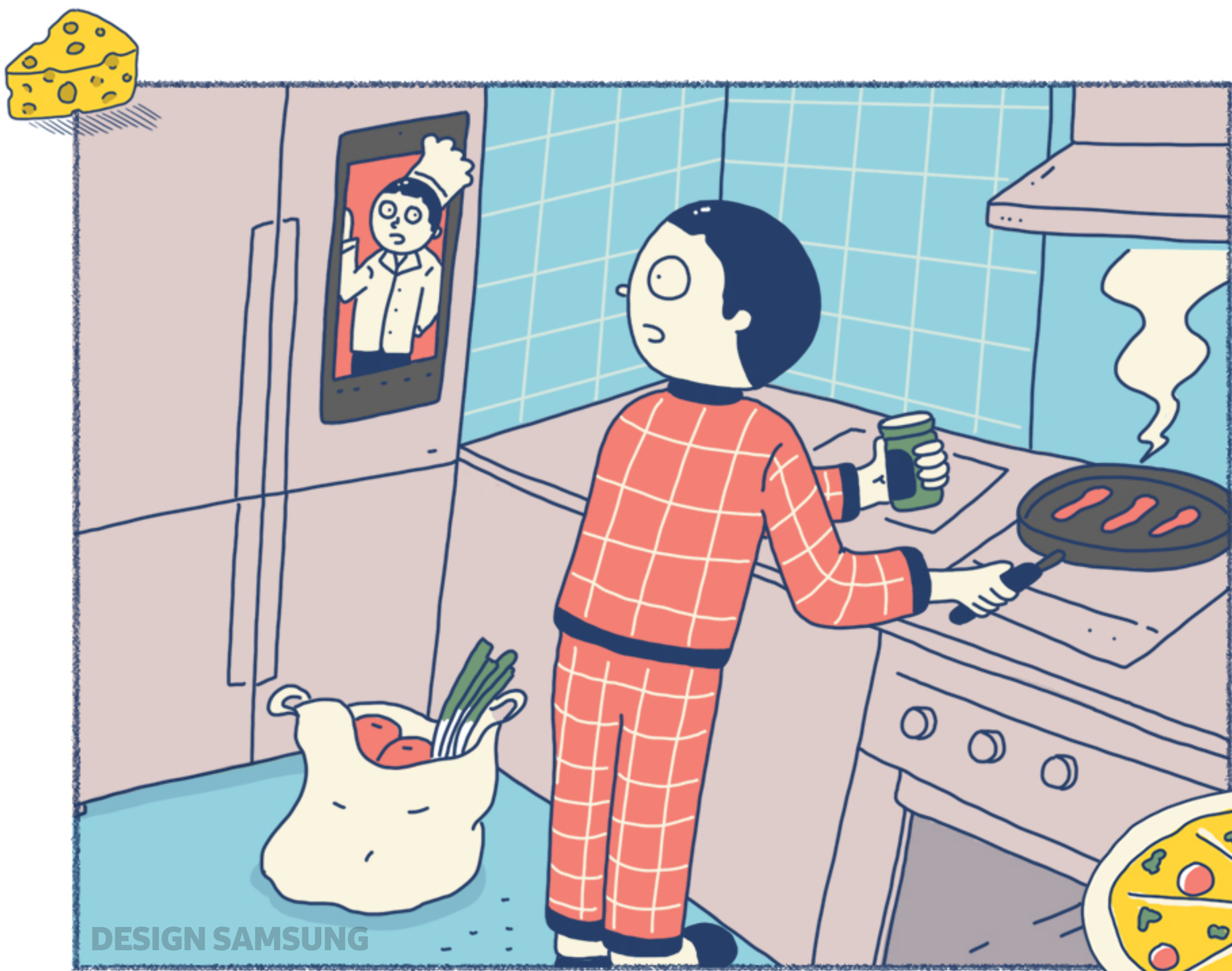


한여름에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너무 덥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스마트싱스 앱으로 에어컨을 미리
틀어 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나를 맞아주네요. 집들이
준비로 지쳐있던 찰나, 한층 시원해진
공기가 기분 좋게 몸을 감쌌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준비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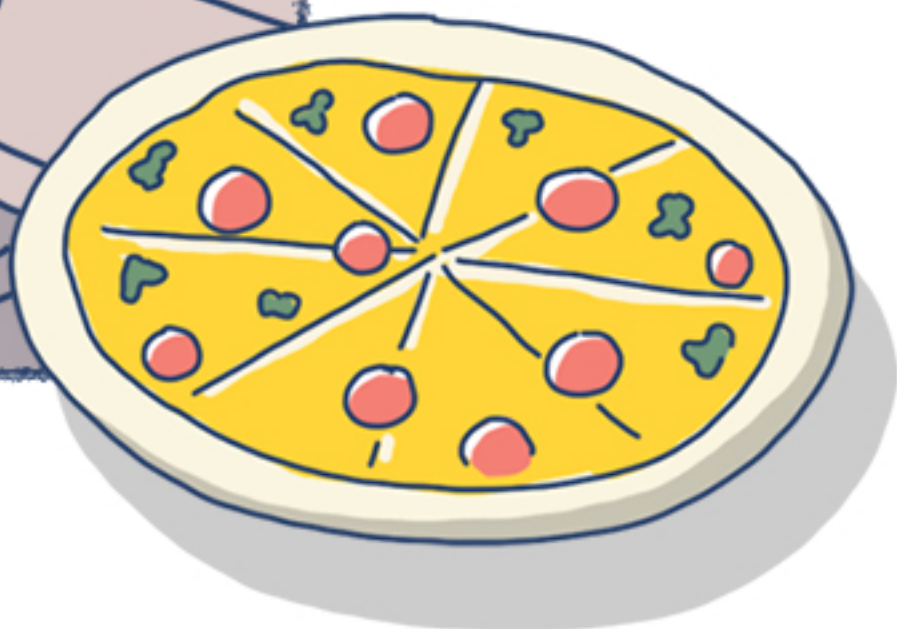
PM 2:00

나를 도와주는 나만의 비서

집에 도착해 장을 본 것을 정리하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도착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마음은 급하고 손은 두 개뿐입니다. 없는 솜씨로 요리를 직접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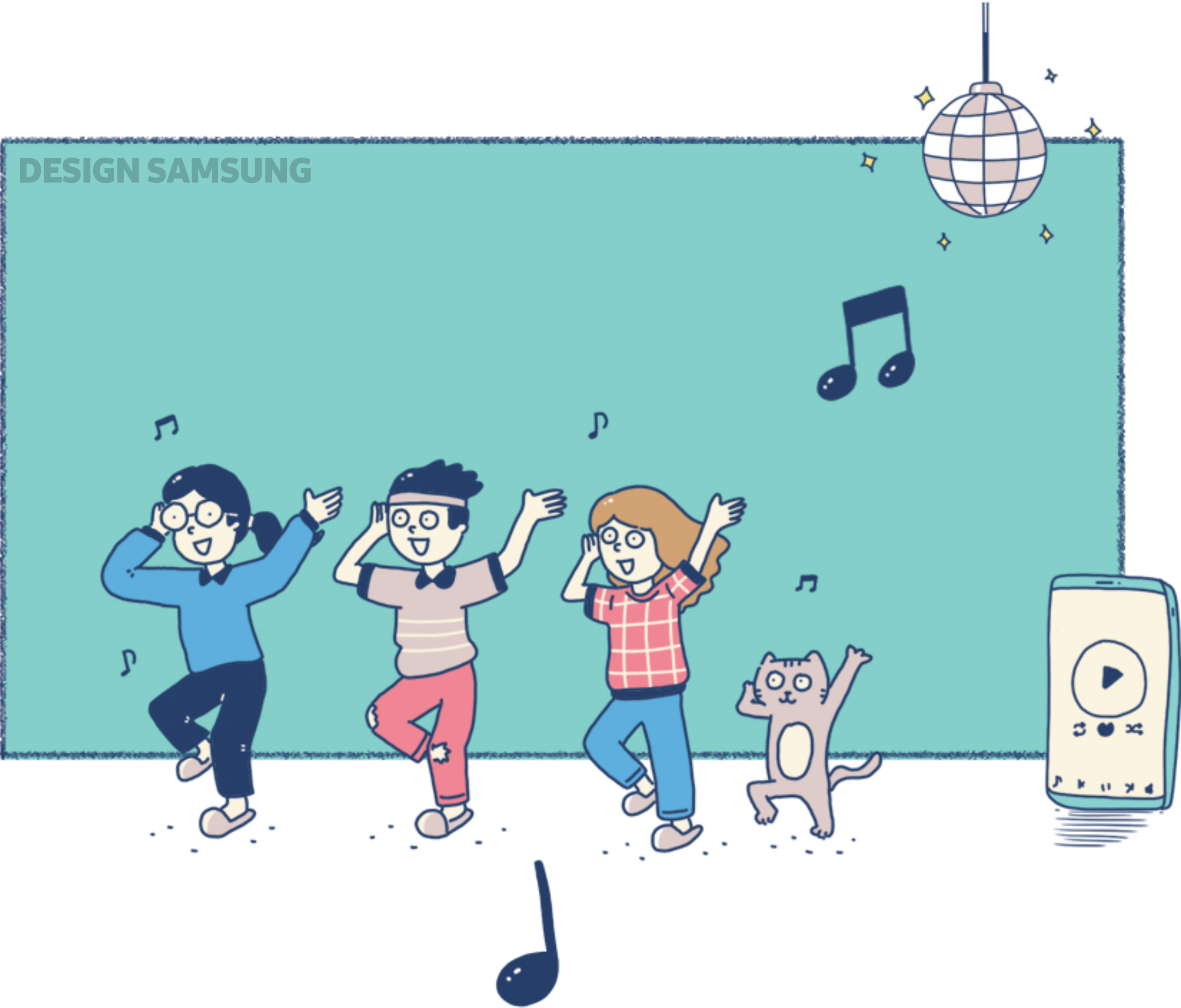


오늘의 메뉴는 야심 차게 피자로
결렸습니다. 많이 먹어만 봤지만 만드는
방법은 모릅니다. 빅스비는 알까요?
패밀리 허브로 빅스비를 불러 봅니다.
“하이, 빅스비. 피자 레시피 알려줘.”
빅스비가 레시피를 찾아 하나씩
차근차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도착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연락이 없는 친구들, 어디쯤 왔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하이, 빅스비.
다니엘에게 어디냐고 문자 보내줘.”
아차! 친구들이 벌써 집 앞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친구들이 도착해 거실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가 완성되려면
한참 멀었네요. 냄비는 끓어 넘치고
친구들은 심심하다며 아우성입니다.
나는 한 명인데 할 일은 많고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빅스비에게
SOS를 요청해볼까요? 스마트폰으로
빅스비를 불러 TV를 틀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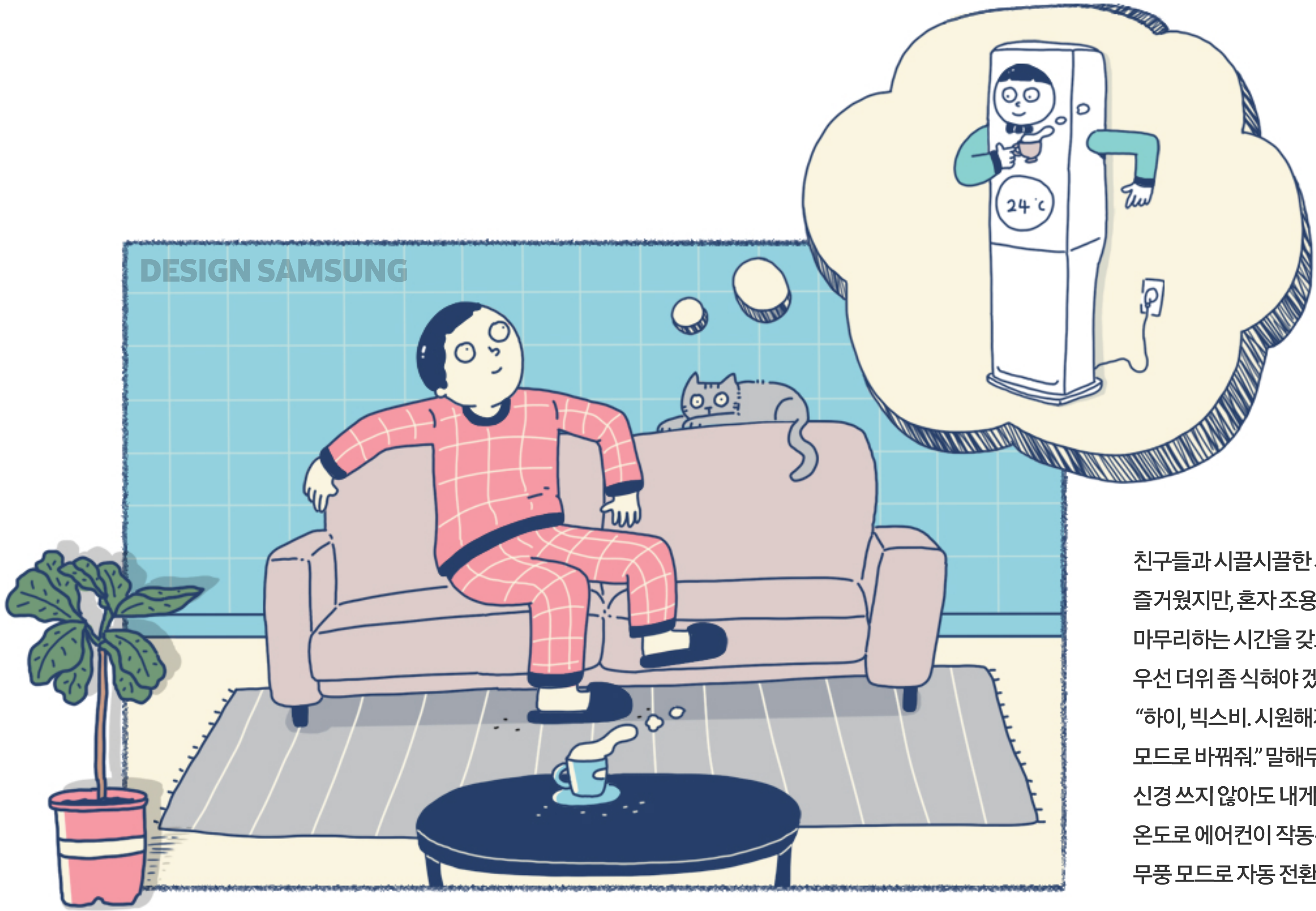


파티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볼까요?
흥겨움을 더해주는 음악이 빠질 수
없습니다. 거실까지 갈 필요 없이
주방에서 스마트폰으로 TV에 바로
음악이 나오도록 설정합니다. 요즘
열심히 듣고 있는 음악들을 틀어줍니다.
거실이 금세 파티장이 됐네요.

PM 8:00

스마트 홈과 마무리하는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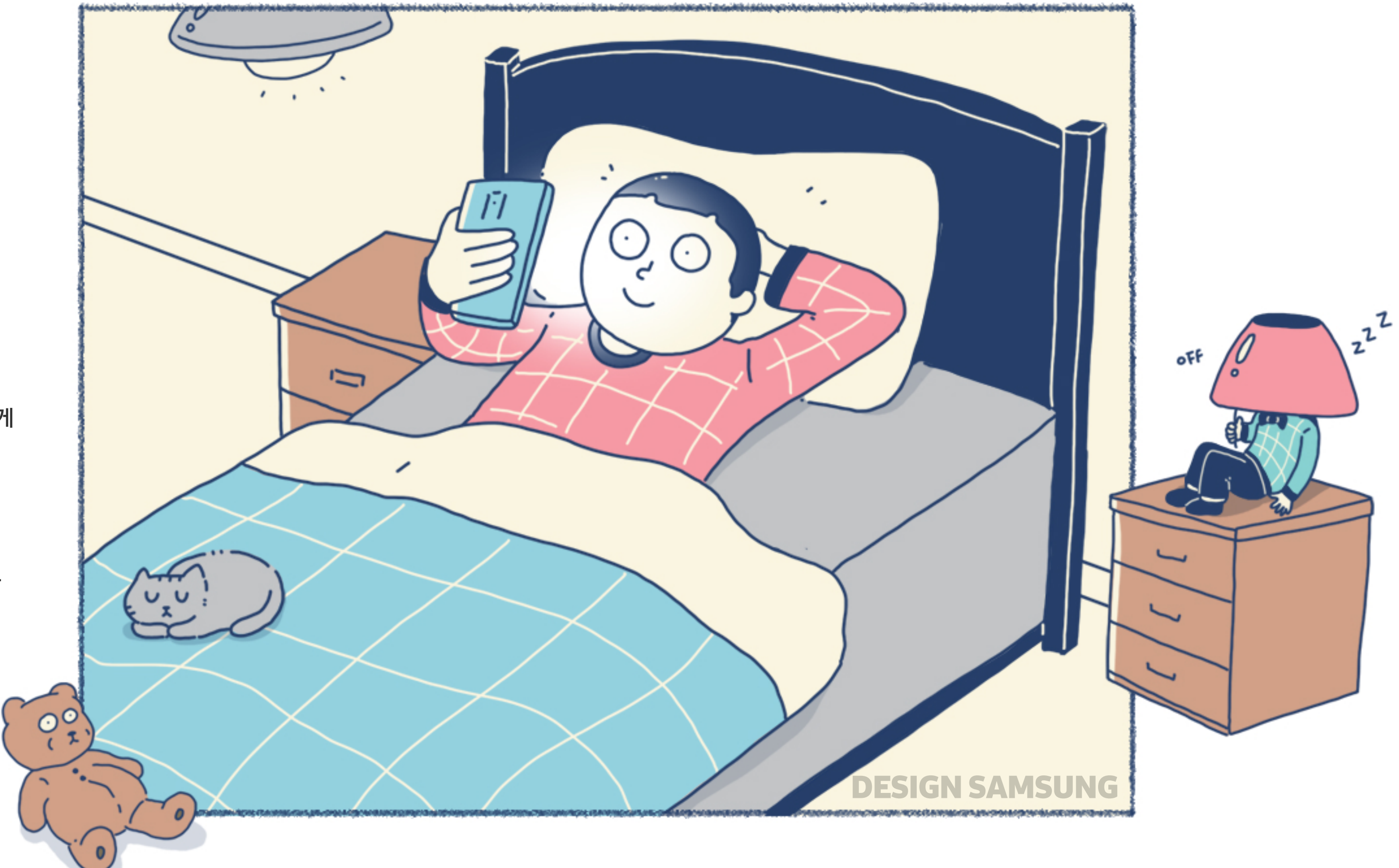
시끌벅적한 집들이가 끝이 났어요. 친구들을 보내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루
종일 정신 없고 바빴지만 실수 하나 없이 잘 흘러간 것 같아 뿌듯합니다.



친구들과 시끌시끌한 시간도
즐거웠지만, 혼자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선 더위 좀 식혀야겠어요.
“하이, 빅스비. 시원해지면 무풍
모드로 바꿔줘.” 말해두면,
신경 쓰지 않아도 내게 맞는
온도로 에어컨이 작동된 후
무풍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GOODNIGHT 🌙

힘들어도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러
잠자리에 들어봅니다. 빅스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하이, 빅스비. 굿나잇!”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조명도,
에어컨도, TV도 그리고 빅스비도
잠에 듭니다.



이제 IoT 기술은 똑똑해진 가전으로 편리함을 더하는 스마트 홈에서
나의 일상을 또 다른 영역으로 데려다 주는 스마트 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홈 안에 머물면서 예전과 다른 방식의 일상을 익히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나의 말 한마디, 손 동작 하나로 움직이는 집이 주는
편리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만들어가는 스마트 홈이
당신에게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곳이 아닌
기대를 뛰어넘는 일상을 경험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design.samsung.com >

